

국민 100명 중 75명 “지방분권 강화 필요”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
전국 3013명 대상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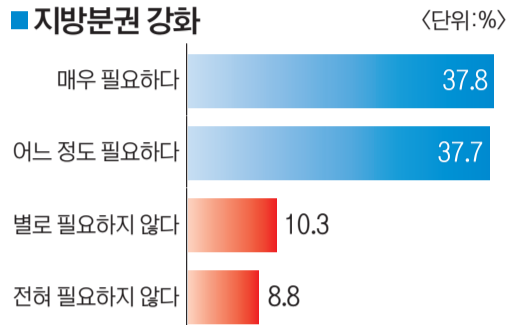
전북 84.8%, 광주·전남 83.6%
호남 지역민 분권 열망 커
균형발전 등 지방 살릴 대선후보
이재명 40.2%·윤석열 36.8%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소외됐던 지역으로 꼽혔던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민의 열망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 대표 지방신문 모임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에이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75.5%가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9.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세부적으로는 지방분권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가 37.8%,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7.7%로, 지방분권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10.3%,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8.8%에 그쳤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과거 정부에서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전북지역이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전남이 83.6%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



도권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각각 71.0%, 73.4%로 낮았다. 하지만, 10명 중 7명 이상이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지방분권 강화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5.4%, 열린 민주당 지지층 85.6%가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65.6%만이 지방분권 강화 필요에 답변했다.

또 차기 대선 후보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통해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0.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6.8%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7.6%), 정의당 심상정 후보(3.6%),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1.7%),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1.1%) 순이었다. 그외 다른 인물은 1.9%, 없음은 4.8%, 잘모르겠다는 2.5%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국 3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ARS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1.8%포인트다. 전국을 대표하는 9개 지방 신문사들이 국내를 9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이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설문 결과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남구 중심 오미크론 집단감염 확산

광주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광주만 유독 남구 봉선동 등을 중심으로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모임이 잦은 이번 연말연시 휴일시즌이 대규모 확산 여부를 결정할 최대 고비로 보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들어 광주에서는 역대 월별로 가장 많은 169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8005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6000명을 넘어선 뒤 7000명(지난 15일)까지 22일 걸렸지만, 8000명 돌파에는 불과 15일이 소요됐다.

지난 21일(106명)과 29일(102명)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감염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남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게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겨울철 환파에 따른 환기 없는 실내 밀집 생활 등 계절적 요인도 감염세 확산의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광주에선 이날도 오후 2시 현재 모두 64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유증상자만 23명에 이른다. 특히 동구 초등학교와 중학교, 서구 중학교 등 3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1200여명이 전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9일 48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30일 오후 2시까지 19명이 신규 확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안녕! 2021 ... 굿바이 코로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임인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광주 동구 무등산 기슭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눈오는 세밑 ... 광주 새해 첫 일출 7시 41분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신년 첫 주말과 휴일인 1월 1-2일은 눈이나 비 없는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기압골에 동반된 눈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31일 정오까지 광주와 전남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전남북부에는 강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5cm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31일까지 광주와 전남북부 3-8cm, 전남 남서부 1-5cm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1일과 새해

첫날인 1월 1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추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최저기온은 영하 8-영하 1도, 최고기온은 1-4도, 1월 1일 최저기온은 영하 9-영하 3도, 최고기온은 4-8도 분포를 보이겠다.

광주에서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41분께 떠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며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 해상 안전에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지역 대학들 정시 지원 전략 ▶7면

복스 - '근대 유산, 그 기억과 향유' ▶14·15면

페퍼스, 얇은 선수층 '투혼'으로 메운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문화대로 516(수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대로 603(남동) 20(소문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문화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상 : 3.8, 고속도로 :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